

# “바다로 치유海” 완도 해양치유센터 24일 개장

### 명사십리 해변에...명상 풀·바스 테라피 등 16개 치유시설 갖춰 시범운영 이용객 90% 이상 만족...“국민의 건강한 삶 선도 최선”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건 완도군이 명사십리 해변 일원에 해양치유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완도군은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해양치유산업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이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7740㎡ 규모로 조성됐으며, 모두 16개의 치유요법 시설을 갖췄다.

센터는 지난 9월2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시범 운영하며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용객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센터 1층에는 건물에서 가장 큰 해수 시설인 ‘팔라소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물속에서 지팡이를 잡고 걷는 ‘수중 노르딕 워킹’과 공기 방울 수압 마사지 등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치유요법은 전신 이완과 통증 완화, 근육

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해수 안개’ 시설은 해수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해 호흡기 질환을 개선한다.

‘명상 풀’에서는 몸을 물에 띄워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아 긴장 완화·불면증 해소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흙 치유요법’은 완도 해변에서 채취한 천연 진흙을 바르며 독소 배출과 피부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해조류 거품 치유요법’은 해조류의 영양 성분을 거품으로 만들어 전신 마사지를 누릴 수 있다.

센터 이용객들은 ‘명상 풀’과 ‘해조류 거품 치유요법’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표현했다.

센터 2층은 건강 측정실과 체형 분석·피부 상태 측정 등 개인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해수 풀·증기 목욕·비쉬 샤워·바스 테라피·저주파 요법·해조류 머드 랩핑 등 ‘습식 치유요법’과 색갈·소리·음악·향기 등을 활용한 ‘건식 치유요법’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 인근에 마련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오는 24일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센터 전경. <완도군 제공>

로 나뉜다.

‘해조류 머드 랩핑’은 해조류 또는 해조류 분말을 해수 또는 머드에 섞어 피부에 바르는 방식이다. 붓기와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필라테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GX룸과 휴식과 함께 차,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 공

간이 있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되면 국내 해양치유산업이 분개도에 오른다”며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외국인 정착지원금 60만원 영암군, 25일까지 접수

영암군이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 주민에게 3개월간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주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으로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주민에게 3개월분 초기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살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또 이들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촉진한다.

영암군은 지역 인재 ‘F-2-R’과 외국 국적 동포 ‘F-4-R’ 비자를 받은 120명에게 정착지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금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나눠 준다.

영암군은 정착지원금이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시 ‘폐현수막 큰물고기 자루’로 환경 정화

### 삼학도·평화광장 등에 설치

목포시가 폐현수막을 활용해 ‘큰물고기 자루’를 만들어 연안 쓰레기 치우기에 나섰다.

목포시는 전남도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 큰물고기 자루를 제작하고 있다.

폐현수막은 목포시 새마을지회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 ‘큰물고기 자루’ 150개로 다시 태어났다.

이 자루들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청결 활동에 쓰였다. 목포 삼학도와 북항노을공원, 평화광장에 버려진 쓰레기가 이들 자루에 담겼다.

목포시는 오는 26일까지 앞쪽달목단 물고기 자루 30개를 노을공원, 평화광장에 전시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을 끌어낼 예정이다.

또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해 자루·장바구니를 만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 전시된 큰물고기 자루. <목포시 제공>

들어 동부시장 등 방문객에 나눠줄 계획이다.

김재진 목포시 건설과장은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장 이상 태워지며 4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목포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군 ‘보호수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팽나무 등 117그루 보유

신안군이 보호수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안군 보호수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신안군에는 총 117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지만 보호수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자료가 없다. 부분적으로는 방치되고 있어 보전, 복원, 홍보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신안군은 올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보호수의 분포 실태에 대한 정밀 기초조사를 실시해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했다.

신안군에서 보호수로 선정된 수종은 팽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굴솔 등을 포함해 11종류, 117본으로 조사됐다. 보호수 중 가장 많은 종은 팽나무로 96그루(82%)로 조사됐으며, 다음으

로 소나무(6그루), 느티나무(5그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보호수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팽나무는 자생수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며 거목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정자목으로 가장 좋은 수목이다. 신안군 노거수는 팽나무, 느티나무, 말구슬나무, 굴솔 등을 포함해 4종류, 28그루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연구결과를 지속 가능한 도서 생태계 관리의 기초자료 및 신안군 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신안 주요 보호수 도서발간 및 신안 주요 보호수 국제 홍보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무안군, 남악청소년문화의집 개관...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투버림·악기·댄스연습실·노래방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남악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을 열었다.

무안군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의 개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은 연면적 1326㎡에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는 사무실과 청소년상담실, 2층에

는 3D프린터를 체험하고 다양한 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메이커스페이스를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품보관실 등이 있다.

또 3층에는 방송촬영·편집이 가능한 유투버림과 악기연습실, 댄스연습실, 미니노래방, 학습실, 실내 집회장을 갖췄다.

무안군은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개방했다. 향후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활

동,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군, 화원 구림·역수마을 지표수 보강사업 착공

해남군이 매년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화원면 구림·역수마을 농경지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착공한다.

총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곡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양수장을 이용해 금호호 물을 마산제에 공급하고 마산제에 양수장을 설치, 구림·역수 소류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수혜면적은 33.83ha로 공사는 11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화원면 구림·역수마을 농경지는 수도작과 밭작물인 배추, 양파, 마늘, 고추 등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다.

특히 배추와 양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물을 공급하는 구림·역수마을 소류지 담수량은 관계면적 대비 적어 매년 가뭄피해가 반복된다.

양수장 설치와 함께 제방누수방지를 위한 제방그라우팅 및 방수로를 개보수도 함께 이뤄진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